

일부 복원 사례를 통해 본 전통정원 보존기법*

- 한·중·일 궁궐정원 유적을 중심으로 -

김동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The Traditional Garden Conservation Techniques through Partial Restoration Case - Focusing on the Palace Garden Sites of Korea, China and Japan -

Kim, Dong-Hyun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toration techniques of traditional garden sites targeted Korean, Chinese, Japanese palace garden. Restoration was divided into the restore foundation and restore individual elements depending on the residual state of the actual garden features. And derived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considered by conservation techniqu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anfo Pavilion Area in Beihai Park where the foundation and foundation stones were restored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Archaeological Site in Gwanbuk-ri, Buyeo restored only the remaining structures of the ponds, waterways and large buildings among the areas where the excavation was completed. The Second Daigokuden Garden in Heijokyo Palace restored building sites and foundation, and installed poles and piles so that the area of the Second Daigokuden Garden could be known.

Second,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Gyeongju where the restoration of individual elements was made, preemptively restored the remains of traditional gardens based on pond garden estuaries and feedbacks that were confirmed through initial excavation. Huanghuazhen Area in Yuanmingyuan Garden was restored based on Western copper plate prints and related records, but further data found after the restoration confirmed that it was restored differently than it is now. East Palace Garden in Heijokyo Palace covered existing features with soil and restored buildings on them. Typical garden elements such as landscape stone and waterways were preserved and exposed.

Third, foundation restore is a case in which the base is identified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he traditional garden site, it is important to restore the foundation first and secure the territoriality when there is no restoration plan for the elevation structure or size of the garden relics. Restoration of individual garden elements requires carefu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by limiting the restoration of objects that can be restor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for each element, such as some buildings or facilities in the traditional garden site.

Key words: Literature Review, Preservation Management, Restore Foundation, Restore Individual Elements, Restore Prototyp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중·일 궁궐정원유적을 대상으로 기반복원, 개별 정원요소 복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보존기법별 고려되어야 할 특징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20 명승의 복합유산·활용을 위한 동·서양 국제공동연구'(과제번호: NRICH-2005-A12F-2)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02-834, South Korea, Tel.: +82-42-610-7617, E-mail : briton2409@naver.com

첫째, 기단복원이 이루어진 정원유적들을 살펴본 결과, 북해공원의 만불루 경구는 관련 문헌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단부와 주춧돌만을 복원하였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발굴이 완료된 지역 중 연못과 수로, 대형건물 터에 남아있는 기단과 흙다짐 기초만을 복원하였다. 평성궁의 제2대극전은 건물지와 기단을 복원하고 주변에 제2대극전의 영역을 알 수 있도록 장대나 말뚝을 설치하였다.

둘째, 개별요소의 복원이 이루어진 경주 동궁과 월지는 초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못 정원유구와 사료들을 토대로 전통정원 유적을 선제적으로 복원하였다. 원명원의 황화진은 서양동판화와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복원하였으나 복원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모습과 다르게 복원한 점을 확인하였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기존 유구들을 복토하고 그 위에 건물들을 복원하였으며, 경석과 수로 등 대표적 정원 요소들을 보존처리하여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기단복원은 전통정원 유적의 현재 상태 또는 발굴조사를 통해 기단부가 확인된 경우로 입면 구성방식이나 규모 등이 확인된 기단부를 우선 복원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복원은 전통정원 유적 내 일부 건물이나 시설물 등 개별 요소들에 대해 문헌 고증을 통한 복원이 가능한 대상들을 한정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면밀한 문헌 고증이 요구된다.

주제어: 개별요소 복원, 기단복원, 문헌 고증, 보존관리, 원형복원

1. 서론

전통정원은 최초 조영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변화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훼손·멸실 등이 확인되며, 일부 유적은 그 터만 남아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알려지기도 한다. 정원은 여러 시대와 문화의 쉼을 포함하고 있고, 외부공간에 위치한 입지특성상 교란의 가능성이 높다. 여러 요인에 의해 공간의 변화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원을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에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통정원의 보존은 건조물과 같이 특정시대로의 동결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장소성 있는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원 내 유구 보존은 이를 위한 역사적 증거를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 정원은 현재의 입장에서 화목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과거의 풍치를 원형대로 복원하려는 역사적 정원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1]. 최근에 들어서 정원고고학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다산초당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재건사업 이후 다산도(茶山圖, 1812)가 발견되면서 다산초당의 경관은 다산도를 기준으로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2],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내 외래식물·귀화식물의 무조건적 제거가 이루어지는 등[3] 그간 전통정원 유적의 보존·정비 사업은 건축 및 고고학 분야의 유적 관련 지침에 기초하여 전통조경의 개념이나 기준, 고증된 모델의 제시가 미흡한 채 전반적인 방향이나 비전이 수립되지 않은 개별적·단발성 사업으로 시행된 한계를 보였다[1].

국제사회에서는 베니스현장을 토대로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플로렌스 현장 등 진정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로 기존의 현상이나 규범 등을 토대로 자국 내 상황에 부합하는 보존 원칙들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국내 또한 문화재보호법 상에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문화유산현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비지침들을 수립해왔으나 2007년 전통정원의 보존 및 복원 원칙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도[5] 전통정원 유적을 대상으로 보존에 대한 지침 설정과 운영은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궁궐정원은 당시 정원술이 집대성된 지역으로 시대적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나, 오늘날 궁궐정원의 복원정비는 대부분 조선시대 한양의 4대궁과 종묘에 치중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전 고대 정원문화에 대한 조명과 정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자국 내 전통정원을 문화재 단위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정원 유적 복원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양국의 선진사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선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북방의 황가원림과 남방의 사가원림을 중심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정원유적을 문물 단위로 보호하고 있으며, 유적이 발견되면 조경 전문가들의 주도로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옛 문헌들과 연관성을 파악한 후 발굴을 실시하는 등 정원유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자리 잡고 있다[6]. 일본은 전통정원을 대상으로 명승이나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가치 등급화를 통해 보존·관리·활용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궁궐정원 유적의 복원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존기법 선정에 고려되어야 할 특징들을 도출함으로써 전통정원 유적 복원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기법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중·일 궁궐유적의 복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유적의 범위는 오랜 시간동안 폐허로 남아 있거나 땅 속에 묻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7],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지상·지하에 관계없이 정원유적이 확인되고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복원기법의 분류는 복원 범위에 따라 정원 유적이 위치하던 기단만을 복원한 기단 복원과 정원요소를 개별적으로 복원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삼국 궁궐정원 유적 총 6개소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보고서, 정비보고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복원기법별 각 정원유적의 발굴 및 정비의 경위와 결과를 분석하였으며(Table 1), 이를 통해 전통정원유적의 복원기법 선정을 위한 조건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Table 1. A Case of Garden Sites by Country and Restoration Range

Division	Restore Foundation	Restore Individual Elements
Korea	Archaeological Site in Gwanbuk-ri, Buyeo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Gyeongju
China	Beihai Park (Wanfo Pavilion Area)	Yuanmingyuan Garden (Huanghuazhen Area)
Japan	Heijokyo Palace (The Second Daigokuden Garden)	East Palace Garden in Heijokyo Palace

III. 결과 및 고찰

1. 기단복원

1) 북해공원 만불루

중국 북해공원 만불루(万佛楼) 경구는 1770년 건륭제가 황태후의 팔순을 기념하여 조성한 곳으로 남동쪽, 북동쪽에 각각 1개의 석주가 조각되어 있고 동쪽과 서쪽에 보적루(宝积楼)와 만휘루(鬘辉楼)가 위치하였다. 보적루와 만휘루, 2개의 석주 사이에는 대천륜주패루(大千輪駐牌樓)와 취제복덕패방(聚諸福德牌坊), 방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1900년 8개국 연합군의 북경 침공 당시 만불루는 일본군 사령부로 이용되면서 내부의 불상과 같은 유물들을 약탈당했으나 외부 정원공간의 피해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이후 만불루 경구 내 건조물들이 노후되어 기울어

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수가 진행되지 못했고, 1953년에는 북경시 원림처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불루 경구를 활용한 야외극장을 조성하면서 대천륜주패루 등을 철거하였다. 1959년에는 만불루 경구 내 각 건물들을 활용하기 위해 만불루를 창고로 활용하였으며, 보적루에 냉동창고를 조성하기도 하였다[8]. 만불루는 1965년 국무원의 승인 하에 철거가 만불루 경구에는 보적루와 묘상정(妙相亭)을 제외한 건조물들이 모두 철거되었다. 당시 국무원에서는 만불루를 철거하되 사진촬영 및 측량 등 면밀한 기록을 전제로 승인하였다[8]. 1970년에는 만불루의 일부 자재를 천안문 보수공사에 사용하였으며, 1975-1979년에는 만불루의 저층을 허물고 그 앞의 공터를 식물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변화가 확인되었다[8].

2010년부터 북경문물연구소에서 만불루 경구의 발굴을 실시한 결과 청대 건축기법이 적용된 건축물과 시설의 평면 배치를 확정하였고, 『국조공사(國朝宮史)』 『일하구문고(日下旧聞考)』 등에 수록된 기록과 일치함에 따라[8], 청대 문헌상에 기록된 고증자료와 1900년대 이후 실측자료 및 도면, 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존 만불루 권역의 원형을 확인하고[9] 구역 내 건조물들은 기단부와 주춧돌만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2019년 재개방하였다. 현재 만불루 경구에는 건조물의 기단 상부에 토끼풀과 잔디를 식재하여 건조물이 있었던 공간을 구분하고, 주춧돌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석주나 태호석을 놓은 석반 등을 배치하였다. 건축물 주변 지역에는 맥문동을 심어 과거의 공간을 구분하였다.



Figure 1. A Panoramic View of Wanfo Pavilion Remains



Figure 2. A Panoramic View of the Garden Site from the Wanfo Pavilion

2) 부여 관북리 유적

부여 관북리 유적은 백제 사비시대(538-660) 주요 거점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1978년 백제시대 추정 유구 발견 이후 188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연못과 함께 당시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1983년 연못 유구를 충청남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하였다. 1992년까지 총 7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유구와 유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2001년에는 주변지역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발굴결과를 살펴보면, 연못, 배수로, 축대 등의 시설과 대형건물 터, 지하창고시설, 공방 터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석축유구들이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사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 지속적인 건축물 조성경작이 이루어지면서 토양층이 교란되어, 백제시대의 지층을 확인하고 당시에 조성된 시설들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였다.

이 중에 1982년 초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못과 배수로 등은 백제시대의 유구로 추정되었으며, 연못 내부에서 연꽃잎과 줄기가 발견되어 연지(蓮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 발굴조사에서 연못과 연결된 수로, 우물터가 발견되고, 남북대로, 동서소로, 대형 건물지가 백제시대 유구로 밝혀지면서 2008년 발굴이 완료된 유적을 대상으로 복원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복원정비 대상에는 연못과 목곽창고가 포함되었으며, 남북대로와 동서소로에 연결된 암거 도수로는 관북리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단서로서 발굴된 구간의 기단구조를 복원하였다. 또한 건물지들은 대부분 지면을 파고 만들어진 것으로 건물들의 초석이 현지반보다 낮은 지층에 위치하고 있어 복토 처리하였으나, 대형건물지의 경우 발굴 당시 50cm 가량 기단이 남아 있어 하부의 흩다짐 기초 36개소와 함께 기단복원 되었다[10].

현재까지 발굴된 결과로는 부여 관북리 유적의 영역과 기능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변지역의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Figure 3. A Stylobate Restoration on Large Building Site[11]



Figure 4. A Restored Lotus Pond[12]

3) 평성궁

평성궁은 나라시대 도읍이 평성경(平城京)-공인경(恭仁京)-

난파경(難波京)-자향악궁(紫香樂宮)-평성경(平城京)으로 이 전하면서 궁궐의 이용 또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제2대극전은 745년 다시 평성궁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조성하였다. 이에 평성궁 전기에 정궁으로 사용되었던 대극전은 '제1대극전', 평성궁 후기 정궁 이용 지역은 '제2대극전'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제1대극전은 2010년 복원을 완료하였으나 제2대극전은 기단복원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말 제2대극전 일대를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대극전지(大極殿址)'라는 팻말만이 세워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잔디와 수풀로 뒤덮인 기단만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1981년 해당 지역을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2대극전 일원의 복원은 과거 대극전이 위치한 자리의 기단만을 노출시키고 대극전의 경계 지역에는 말뚝이나 장대를 설치하여 대극전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복원된 기단부는 외부에 노출시켰으며,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유구들은 평성궁 내 전 시관으로 이전하여 전시하고 있다.

현재 제2대극전은 평성궁 일대의 전망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평성궁의 입지와 구조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Figure 5. The Second Daigokuden Garden in 1957[13]



Figure 6. A Marking the Area by Installing the Pole in Front of The Second Daigokuden Garden

2. 개별 정원요소의 복원

1)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 나당전쟁(670-676) 당시 조성된 궁원으로 서남쪽에 건물들이 배치되고 동북쪽으로 월지가 조성되어 있었다[11]. 동궁과 월지를 바라보는 건축선과 조망대상은 사선을 이루고 호안 석축의 직선과 곡선공간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으로 공간의 열고 닫힘을 반복하는 특징을 지닌다[14]. 일제강점기 동궁과 월지는 철로가 지나가는 등 많은 훼손이 발생하였으나 1980년대 발굴을 통해 확인된 건물지 중 일부만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 발굴이 시행되기 전에는 동궁 월지와 반월성 사이에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으며, 임해전 건물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지 주변 지역에

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주변부의 평탄화, 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졌었다[15].

1975년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경주 동궁과 월지 영역에는 총 26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궁의 구조와 영역, 문헌상에 나타나는 주요 시설들이 밝혀지지 않았고, 남북으로 정연하게 배치된 3동의 대형 건물지만이 동궁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26개 건물지 중 서측 호안의 건물 3동만을 (2동은 팔작지붕 누각, 1동은 4모 지붕) 복원하였다.

정원공간에 해당하는 월지 일대는 1차 발굴 당시에도 호안과 섬들의 석축 유구가 확인되어 월지의 규모와 구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고적도보』의 유리원판 사진, 1929년 하라 히로시(原熙)의 측량도면과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영역을 복원하고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15].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시대 건축 양식 고증과 유구의 발굴 조사가 추가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통정원 유적 발굴 결과와 사료에 의하여 정원 영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Figure 7. The Donggung Palace Excavation in the 1970s[16]



Figure 8. A Hold Events Around the Imhaejeon Building in 1971[17]



Figure 9. A Current Status of Post Restoration The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2) 원명원 서양루 황화진

원명원 서양루의 북서측에 위치한 황화진은 유럽의 미로정원을 중국식에 맞추어 변용한 정원으로 1896년 자희태후가 황화진을 세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을 통해 1860년대 유럽연합군의 침공 당시에도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0년 이후 점차 파괴되어 유구만이 남아 있었다. 다른 서양루의 정원공간이 유구를 노출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반면, 황화진은 문헌고증과 발굴조사를 토대로 일부를 복원하였다.

1987년 서양동관화의 내용을 토대로 유구를 수습하여 벽을 쌓고 미로를 구성하였으며, 1989년 중앙에 정자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그림을 토대로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복원 상에 누락된 요소가 확인되었다. 서양동관화의 황화진 경계는 미로의 진입부에 해자가 둘러진 지역까지 표현되어 있으나, 1870년대 전후에 촬영된 황화진의 모습은 중앙의 정자와 미로원의 경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유럽 양식의 문과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18]. 현재에는 외부의 문과 담장이 없어 과거에 비해 오늘날 황화진의 면적은 축소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Figure 10. An Exterior of Huanghuazhen Filmed Before and After 187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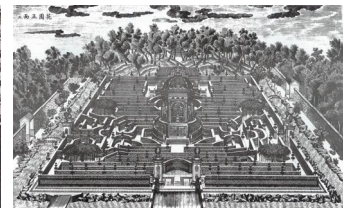


Figure 11. The Huanghuazhen Recorded in Copper Print of Western Mansions

3) 평성궁 동원 정원

평성궁 동원은 나라시대 전기 천평(天平) 연간(729-749)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라시대 중기 원지와 주변의 건물이 대대적으로 개수되었다[19]. 그러나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평성궁 전역은 목조건축물의 흔적만 남게 되었다. 동원 정원은 1967년 발굴을 통해 정원 유구를 확인하여 평성궁 중 일부로서 복원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평성궁 동원 정원은 장방형으로 중앙 건물과 북동측 건물, 누각 등이 있었으며, 중앙 건물과 연결되는 평교, 북동측 건물과 연결되는 반교가 조성되어 있었다. 연못의 중앙에는 중도가 위치하고, 연못 호안이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1961년 평성궁 터에서 발굴된 목간과 『속일본기(續日本記)』, 『만엽집(萬葉集)』 등에 나타나는 기록을 토대로 1998년 동원 정원의 복원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에 중앙 건물과 주변 누각을 포함한 복원을 완료하였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특별사적 평성궁 유적 보존정비 기본 계획(1978)』에 의거하여 복원되었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나라시대 후기 경석의 설치, 축산과 중도의 조성, 복잡한 형태의 호안으로 개수되면서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나라시대 후반의 모습으로 복원시점을 설정하고 유구를 성토한 뒤 상부에 건물을 복원하였다.

연못 주변에는 수로를 복원하고 경석과 자갈을 깔았는데, 기존 유구들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아 모래와 부식포로 가린 뒤 이와 유사한 자갈들을 약 10cm 두께로 포설하여 호안을 구축하였다. 복원 당시 일부 유구가 교란되어 임의 복원되었는데 정원 내 곡수로 하부가 이에 해당한다.

동원 정원의 주요 유구인 경석은 외부로 노출하여 보존하되 일부 합성수지로 구조를 강화하고 갈라져 있던 곳을 접착하였다. 또한 과거 경석이 위치하였으나 현재 해당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는 이와 유사한 돌을 배치하고 뒷면에 배치한 연도를 표시하여 기존 원형 유구와 구분하였다.

발굴당시 채취한 화분분석을 통해 적송, 흑송, 매화, 복숭아, 아까시나무, 뽕나무, 동백나무 등이 식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연집과 『회풍조(懷風藻)』의 정원 식재기록과 비교하여 수종을 선택하였다. 수목의 크기와 수형은 『연중행사회권(年中行事繪卷)』의 그림을 참조하여 동원 일대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복원하였다.



Figure 12. A Panoramic View of Restored East Palace Garden in Heijokyo Palace



Figure 13. A Restored Building and Bridge of East Palace Garden in Heijokyo Palace



Figure 14. A Waterways in Garden



Figure 15. A Landscape Stone in East Palace Garden in Heijokyo Palace

3. 한·중·일 궁궐정원의 복원 특성

한·중·일 궁궐정원 유적의 복원방법을 기단복원과 개별요소 복원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보존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기법 선정에는 유적의 현재 상태, 고증자료의 확보, 유적이 지닌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적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는 원형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에 따라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 원형의 일부만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적으로 구분된다. 원형이 보존된 유적의 경우 정원 유적의 현재 상태가 과거로부터 전해져 왔거나, 발굴조사 결과 교란의 흔적이 없고 과거의 모습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반면 원형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례로는 과거의 모습을 확인할 사료가 부족하거나 발굴조사 결과 정원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료와 유구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복원을 통한 정비가 고려되지 않는다.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기법 선정 과정은 유적의 현재 상태가 현존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고증자료와 정원 유적의 일치여부 판단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각 세부 사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 다양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전통정원 유적은 원형공간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형태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원형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는 유형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기단복원, 일부복원 등 보존의 기법과 강도가 차등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Figure 16).

1) 기단복원을 통한 원형공간의 영역 확보

전통정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의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나 혹은 노후화되어 원형복원의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기단복원은 발굴을 통해 기단부가 확인되거나, 기단을 통해 현존하는 정원유적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기단을 통해 정원 내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부여 관복리 유적은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중 대형건물지는 발굴당시 위치와 규모가 확인되어 이를 기단 복원하였다. 또한 하부의 흙다짐 기초는 기단과 함께 노출시키고 수로의 복원을 통해 관복리 영역을 표시하였으며, 이외에 지역은 잔디로 피복하였다.

북해공원 만불루는 과거 철거된 건물과 정원시설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불루 경구가 철거되기 이전의 전경사진 및 항공사진 등을 비교하여 경구 내 건축물과 시설물들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였다. 북해공원은 복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기단 복원의 방법을 통해 과거 만불루 경구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평성궁 제2대극전은 대극전 자리의 기단만을 정비하고 경계 지역에 말뚝과 장대를 설치하여 대극전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세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 사례로 볼 때 기단복원은 기존 정원유적의 영역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정원유적의 규모나 용도, 형태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차후 추가 발굴이나 문헌의 발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복원된 기단에 관람로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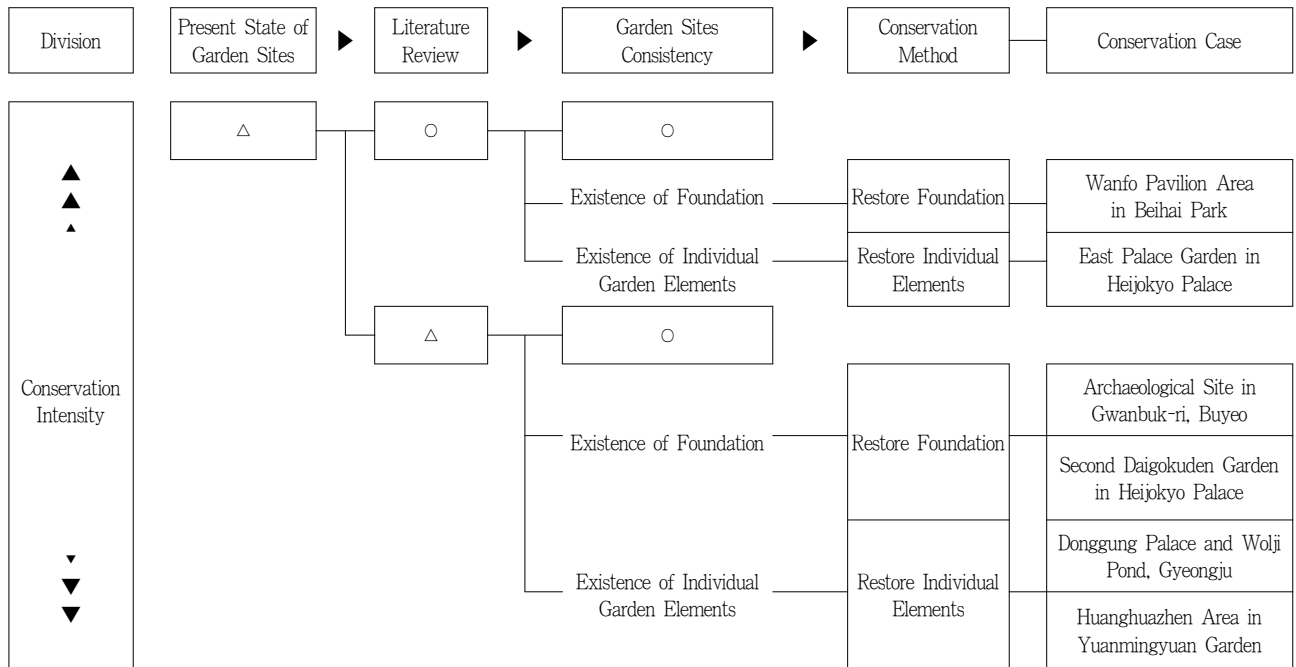


Figure 16. A Selection Process of Conservation Method for Traditional Garden

되는 식재나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영역을 표시하여 원형공간과 전시공간을 구분하였다.

2) 일부복원을 통한 전통정원 유적의 선제적 진정성 회복

정원요소의 복원에는 과거자료의 고증을 통한 진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고증자료에는 과거 정원의 조영자나 정원을 향유했던 인물의 행적과 기록이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 창건기나 중수기 등의 문헌과 사진·그림과 같은 이미지들도 포함된다. 고증의 과정에는 해당 문헌이 지니는 상징적 표현이나 작자의 주관적 해석이 가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헌의 내용을 모두 원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전통정원 유적과 대조를 통해 문헌과의 일치성과 오차의 발생 요인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경주 동궁과 월지는 발굴조사 결과 26개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나, 건물의 구조와 영역, 주요시설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호안 주변 건물 3개소만 복원하였으며, 정원유적은 발굴 초기 그 실체가 확인되어 문헌자료와 비교를 통해 정원유적 위주의 일부복원이 시행되었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평성궁 발굴 및 복원정비 사업에 따라 제1태극전과 함께 일부 복원된 사례이다. 평성궁 동원 정원의 발굴 결과를 통해 복원시점을 나라시대 후기로 선정하고 유구의 복토 후 그 위에 정원을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연못과 곡수유거 등 주요시설을 보강하여 노출시키고, 정원 내 건물과 다리를 복원하였다. 또한 화분분석과 문헌고증을 통해 식재 수종과 수형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원명원 서양루 영역의 황화진은 서양동판화와 사진, 문헌 등을 바탕으로 미로를 조성하고 대리석 정자를 설치하는 등 일부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복원 이후 발견된 사진들에서 외부담장 미복원에 따른 권역 축소, 미로정원 중앙 정자의 형태와 소재가 다른 점이 확인되어 복원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일부 복원은 문헌고증을 통해 확인된 전통정원 유적 내 일부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일부나마 유적의 장소성과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명원 황화진의 사례와 같이 문헌 고증이 완료된 정원유적이더라도 문헌에 기록된 정보의 맹신으로 현장에서의 정원 유적을 배제하고 무리한 복원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원형 훼손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중·일 궁궐정원 유적을 대상으로 복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실제 정원 유구의 잔존 상태에 따라 기단복원과 개별 정원요소 복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존기법별 고려되어야 할 특징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단복원이 이루어진 정원유적들을 살펴본 결과, 복해공원의 만물루 경구는 정원 전역의 복원보다는 관련 문헌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단부와 주춧돌만을 복원하였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발굴이 완료된 지역 중 연못과 수로, 대형건물 터에 남아있는 기단과 흙다짐 기초만을 복원하고 이외의 지역은

복토처리하였다. 평성궁의 제2대극전 지역은 잔디와 수풀에 뒤덮여 있던 건물지와 기반을 복원하고 기반 주변에는 제2태극전의 영역을 알 수 있도록 장대나 말뚝을 설치하였다.

둘째, 개별 정원요소의 복원이 이루어진 경주 동궁과 월지는 초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못 정원유구와 조선고적도보, 일제강점기 측량도 등 사료들을 토대로 전통정원 유적을 선제적으로 복원하였다. 원명원의 황화진은 서양동판화와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복원하였으나 복원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외곽 담장의 미복원 등 현재의 모습과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기존 유구들을 복토하고 그 위에 건물들을 복원하였으며, 경석과 수로 등 대표적 정원 요소들을 보존처리하여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복원은 문헌 고증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전체 혹은 일부 짐작할 수 있으며, 기반복원은 전통정원 유적의 현재 상태 또는 발굴조사를 통해 기반부가 확인된 경우로 입면 구성방식이나 규모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반부를 우선 복원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개별 정원요소의 복원은 전통정원 유적 내 일부 건물이나 시설물 등 각 요소들에 대해 문헌 고증을 통한 복원이 가능한 대상들을 한정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면밀한 문헌 고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중·일 궁궐정원 유적을 대상으로 복원에 의한 정비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삼국의 많은 전통정원 유적의 제반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별 분석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차후에는 보다 많은 정원유적의 복원사례 뿐만 아니라 유구노출, 복토, 이전, 재현 등 다양한 정비기법의 수집을 통해 한국 전통정원 유적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중국·일본의 보존기법을 대상으로 선용할 사항을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Lee, W. H.(2019). A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Korean Garden Sites Exca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arden Archaeology. Th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ring Conference Abstract. pp.89-92.

[2] Ahn, G. B. and Lee, W. H.(2014). A Proposition on Landscape Restoration of Joseon Dynasty's Palace Garden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10-20.

[3] Lee, W. H., Kim, D. H., Kim, J. U., Ahn, H. I., Kim, D. Y. and Cho, U. Y.(2014). A Study on the Maintenance Plan of Trees in Gwanghalluwon Garden for Representing Traditional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82-95.

[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09). Foreign survey data collection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 sites.

[5] Kim, Y. M.(2007). A Preliminary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Principles of Traditional Gardens.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2): 82-95.

[6] OhmyNews. 6. December. 20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21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7] Byeon, C. B.(2015). An aesthetic analysis of the ruins of a historical site.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37(1): 175-203.

[8] Beijing Cultural Relics Research Institute(2018). Brief Report on Excavation of Tower of Ten-thousand Buddha Site of Beihai. Beijing Cultural Relics and Museums, 2018(1): 93-102.

[9] https://www.hotbak.net/key/%E5%8C%97%E6%B5%B7%E4%B8%87%E4%BD%9B%E6%A5%BC.html

[10]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09). Report on the excavation of Baekje relics in Gwanbuk-ri, Buyeo.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1] http://www.cha.go.kr

[12] http://www.baekje-heritage.or.kr

[13] https://www.library.pref.nara.jp/

[14] Ahn, G. B.(2000). A Study to Principles of Landscape Design in Anapji(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4(4): 57-67.

[1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4). A Fundament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Strategy for Landscape Space in the Silla Dynasty.

[16] Kim, K. M. and Kim, J. S.(1991). Geography of Scenery and Customs in Gyeongju. Bou Cultural Foundation.

[17] Wolseonggun Municipal Office of Education(1971). National Park Tourism Bulguksa Temple, Gyeongju.

[18] 何重義 and 曾昭奮(2009). 圓明園園林藝術.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2009). Oriental Landscape Cultural History. Goyang;Daega Publishing.

원고 접수 일: 2020년 2월 6일
심사 일: 2020년 2월 25일 (1차)
 : 2020년 3월 10일 (2차)
게재 확정 일: 2020년 3월 1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